

취임 한달 신순주 광주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배역에 서열 연연하지 않고 춤 잘 추는 발레단 만들 것”

러시아 발레 마스터 초빙 단원들 클래스 진행 중

모던발레·화계작 등 무대 첫 공연작은 5월 ‘지젤’

26일 막 단원들 레슨을 마치고 인더뷰 장소로 온 신순주(46) 광주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은 “이제 한달 정도 됐는데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했다.

신 감독은 “춤 잘 추는 발레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를 위해 마린스키 발레단 등에서 활동했던 러시아 발레 마스터 쿠르피예프 루스탐을 초빙, 지난주부터 클래스를 진행 중이다. 취임 후 만난 전임 단장들 역시 단원 기량 향상과 다양한 기획 공연을 올리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무용수들은 어떤 작품을 무대에 올리더라도 관바로 투입될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배역을 정할 때 수석·차석 구분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첫 작품인 ‘지젤’에서 2인무를 할 발레리노가 인턴 단원이예요. 실력이 최우선입니다.”

신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는 현장 활동 공백기가 길고 대형 작품 등을 안 무해 본 경험이 없는 점들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었다.

“그런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작품을 안무해 무대에 올린 적은 없지만 유니버설발레단에서 활동하면서 대형 작품이 세팅되고, 리허설을 거쳐 무대화되는 과정을 수도 없이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무용계의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혼자 안무를 하고 작품을 완성하려 애쓰지는 않을 거예요. 뛰어난 안무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공동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감독은 “안무 작업에만 매몰되



지 않고 다양한 기획을 하고 후원자들을 찾고 단원들이 열심히 발레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단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신 감독의 취임으로 ‘명성황후’ 등 한국창작발레를 올려온 무용단의 레퍼토리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요즘 세계 발레계의 트렌드는 모던발레예요. 토슈즈는 신디, 좀 더 자유로운 몸짓이 가미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 싶습니다. 정통 클래식 발레와 함께 다양한 모던발레를 선보여 시민들이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지 발라신의 작품처럼 화제가 되는 작품들도 우리 무용단에서 올릴 수 있다면 참 멋질 것 같습니다.”

5월 열리는 ‘지젤’ 공연에서는 광주시립단원과 유니버설발레단원이 주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신 감독은 구청의 문화예술회관이나 대학 등에서 ‘해설이 있는 발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

“예술단체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일률적인 조례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단체에 맞는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공연 수당의 차별화 등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강변 따라 실버예술단

29일 남구 승천보 공연...비보이·코미디 등 다채

광주실버예술단 ‘찾아가는 실버예술단’이 오는 29일 오후 2시 남구 승천보 야외 특설무대에서 특별 야외공연을 선보인다. 봄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실버 팝오케스트라의 15인조 연주음악을 시작으로 비보이, 민요, 코미디, 대중 음악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2014 제2회 G-POP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운

민서가 특별출연한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 창단한 광주실버예술단은 3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55~85세 사이의 예술인들로 구성됐다. 해마다 소외지역과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요양병원 등에서 순회 위문 공연을 하고 있으며 대구, 부산 등 전국과도 꾸준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김미연기자 mekim@

“예술에 지역 구분 의미 없어...중국은 기회의 땅”

광주 출신 북경 파산즈 798예술구 활동 윤일권 작가

광주지역 미술계에서 중국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가장 먼저 찾는 인물 중 한 명이 윤일권(51) 작가다. 중국 북경 파산즈 798예술구에 정착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윤 작가는 ‘중국 유학 1세대’로 그동안 중국과 광주의 교류 전시는 물론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조성 등에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 중국 작가를 광주에서 소개하고 담양 문화재단이 조성 중인 국제예술창작촌을 소개하기 위해 중국 작가들과 함께 광주를 찾은 윤 작가를 26일 만났다.

윤 작가가 중국으로 눈을 돌린 것은 1992년이다. 전남대 예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윤 작가가 졸업을 앞두고 중국 현대미술 관련 서적을 접하면서부터다. 마침 한중 수교가 이뤄졌고, 윤 작가는 1년의 준비 끝에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993년 북경 중앙미술학원 대학원에 입학한 그는 1997년 2월 귀국했다. 그 사이 윤 작가는 중국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특히 798 예술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특히 1994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를 앞두고는 공동 큐레이터를 맡았던 장석원 전북도립미술관장(전남대 예술대학 교수)과 함께 중국 작가들을 광주에 소개하기도 했다. 또 1999~2002년 중국과 광주를 오가며 북경 문화회관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북경 중심에 있던 중앙미술학원이 당시 외곽에 있던 파산즈로 이사를 갔어요. 때문에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지요. 특히 당시 그곳은 빈 공장들이 많았는데 워낙 비용이 저렴해 많은 작가들이 작업실을 얻어 작업했죠. 그러면서 작가들이 곳곳에 작품도 만들고, 파티도 하고 하면서 예술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북경 798예술구는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예술지구로 발전했다. 798 예술구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안에 16만 명에 달하는 작가들이 모여 있을 정도다. 특히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연연이 못지 않은 스타 작가로 거듭난 미술인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미술 인재들이 몰려들었다. 인재들이 모이니 경매회사, 유명 레스토랑, 기업, 화랑 등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외국 작가와 자본도 함께.

귀국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작품 활동을 하던 윤 작가가 다시 중국행에 나선 것은 지난 2012년이다. 앞서 2009년 그는 지역과 국내 미술 시장이 위축되면서 작가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었다. 그게 바로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다. 그는 장현우 작가와 함께 박지현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에 이를 제안했고, 1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010년 국내에서는

중국 유학 1세대 전남대서 한국화 전공 중 현대미술 접하며 눈 돌려

798예술구 발전 목적 중앙미술학원 이전 파산즈 활기 20년만에 세계적 예술지구 발전 반경 10km내 작가 16만명 활동

국내시장 위축 속 아이디어 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후배들 세계무대 진출 돕고파

처음으로 북경창작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2013년 제4기 입주작가들도 활동한 그는 현지에서도 잇달아 전시회를 여는 등 중국에서 박소빈 작가와 함께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의인화된 침팬지, 원숭이 등의 수목초상을 통해 현대인의 심리와 삶을 풍자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제는 지역적인 블록이 없어졌어요. 서울과 광주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시립미술관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작가들을 중국에 소개하면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윤 작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후배들이나 유학생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자기만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작가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후배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같은 한국 유학생들끼리만 어울려요. 저희 때만 해도 유학생이 적었던 이유도 있지만 서로 중국어로 서로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립미술관과 함께 중국을 먼저 경험한 선배 작가로서 후배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지난 25일 중국 작가들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봤다. 중국 작가들은 규모와 조성 의미에 대해 놀라움과 부러움을 표현하면서



북경 파산즈 798예술구 내부.

도 그 안에 담긴 콘텐츠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했다.

“전당에 관련된 예산이 행정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술을 하는 이들에 대한 투자가 함께 있었으면 해요. 전당과 광주시립미술관이 보편적인 관계를 유지해 지역 문화를 키우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국 작가의 남도 여행 은암미술관 리강 사진전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오는 4월8일까지 중국 사진작가 리강(李剛)을 초대해 ‘남도만유’(南海漫遊)전을 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해 말 무안과 남해 등지를 둘러보면서 영감에 담았던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전시 주제처럼 지난해 지인들과 함께 남도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리강은 흑백사진으로 풍경을 담아 회화성을 강조했다. 조점을 흐리게 표현해 작품에 신비감을 더했다. 사진에는 바람, 길, 바닷가

등이 시간이 흐르듯, 풍경이 스쳐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가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리강 작가는 북경 출신으로 중국 중앙미술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할 바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에서 단기 입주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의 062-231-5299.

/김경인기자 kki@



‘Snow and sea’

특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I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 트라이슈머 박코팅 시공 /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형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